

스미스채플 역사

스미스채플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버지니아가 아닌, 17 세기 중반의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 옥스퍼드 대학교에는 경건하고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있었고, 그중에는 **존 웨슬리**(1703-1791, 왼쪽 사진)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절제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성공회 목사의 아들이자 믿음의 어머니 수재너의 아들로 자란 존(19 남매 중 15 번째)과 찰스는 결국 전 세계를 뒤흔드는 영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1738 년, 35 세가 된 존 웨슬리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 활동에는 충실했지만, 그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죄사함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후 그의 사역은 50 여 년에 걸쳐 42,000 편 이상의 설교로 이어졌습니다.

존 웨슬리의 추종자들은 '**감리교인(Methodists)**'이라 불리며, 그와 함께 영국 전역과 미국 식민지,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순회 설교자들'은 정해진 봉급 없이, 도보나 말을 타고 다니며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로 “와서 고난을 받으라”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웨슬리 자신은 하루에 60~70 마일을 이동하며, 70 대가 되어서도 하루 3 번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감리교 부흥의 특징은 야외 설교였습니다. 웨슬리와 그의 동역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일하는 현장으로—들판, 시장, 도시 거리로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감리교회 모임'에 모이기 시작했고, 이 모임들이 결국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은 곧 박해를 불러왔습니다. 공식 설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순회 설교자들은 종종 구타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1769 년, 감리교 선교사들이 미국에 파송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들을 '회로(circuit)'로 조직했고 평신도 설교자들이 이를 맡아 감독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이후, **1784** 년 볼티모어의 러블리 레인 채플 (내부 전경, 오른쪽 사진)에서 감리교도들은 공식적으로



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를 창립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웨슬리는 마지막까지도 성공회 사제로 남았습니다. 감리교는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순회 설교자들은 개척자들을 따라 서부로 이동하며 복음을 위해 질병, 험난한 지형, 짧은 수명 등을 감내했습니다.

감리교, 버지니아에 오다

한편, 버지니아 주 해노버 카운티에서는 **1740** 년경, 벽돌공 사무엘 모리스가 ‘**가정 교회 운동(Meeting House Movement)**’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함께 기독교 서적에 감동받아 가정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모임을 열었습니다. 인원이 많아지자 그들은 집 대신 예배당을 지었고, 이것이 감리교를 위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1768** 년, 근처에 ‘**리버티 미팅하우스**’ (왼쪽 사진)가 세워졌고, 이후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가 이 공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리교가 자리를 잡으며 이 부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현재 그 자리는 **드레인스빌 연합감리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40** 년대에 접어들며, **노예제 문제로 인해 감리교회는 분열됩니다**. **1844** 년, 북부의 감리교와 노예제를 지지한 남부의 감리교는 분리되었고, 이는 침례교와 장로교에도 유사한 분열을 불러오며 미국 내 긴장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하나로 묶던 가장 강한 끈은 종교였고, 그 끈은 노예제를 두고 끊어졌다.*”

스미스채플의 탄생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 폐지에 공감하던 감리교 신자들은 비치밀 로드의 제퍼슨 학교** (오른쪽 사진-현재는 건물이 없어짐)에서 **예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없지만, 이곳에서 속회와 주일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교자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걸어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모였습니다. 먼 길을 온 만큼 예배는 몇 시간씩 이어졌고, 그야말로 영적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1888 년,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여인들이 앞장서서 축제와 모금 활동을 펼쳤고, 25 센트, 1 달러씩 정성껏 헌금했습니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옳다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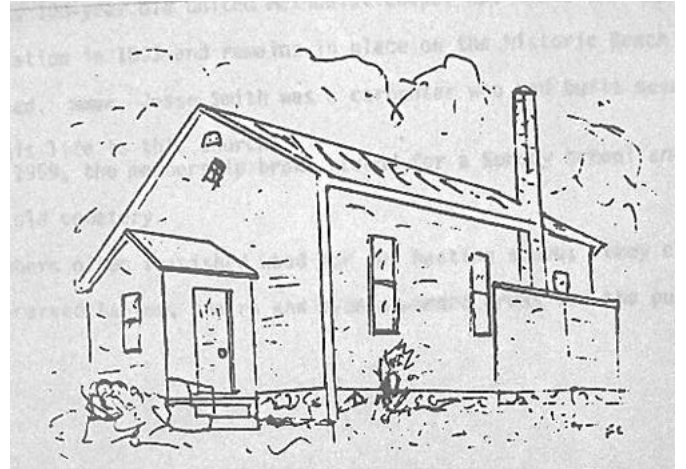
1890 년, 조셉 코크렐에게서 \$52.50 에 땅을 구입했고, **5 월 23 일**, 초석을 놓으며 공사가 시작됩니다. 감리교인이든 아니든, 지역의 남녀노소가 함께 노동과 자재를 기부하며 교회를 세웠고, 건축 전체 비용은 \$1,200 이었습니다.



교회는 **제시 스미스**(1818-1906, 왼쪽 사진)의 이름을 따서 **Smith Chapel** 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잉글랜드 메이드스톤 출신 목수인 그는 뉴욕에서 교회 건축을 돕다, 1854 년 아내 **루시나**와 함께 버지니아로 이주했고, 이 교회를 짓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은 “사랑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남았습니다.

1893 년, 스미스채플은 봉헌되었고, 헌금은 \$28.68 이었습니다. 헨리 비숍 부부는 최초의 성경을 기증했고, 지금도 그 성경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말을 매는 기둥이 교회 뒤에 세워졌고, 식수는 근처 Bicksler 샘에서 길어왔습니다.

1899 년에는 교인이 37 명이었고, 격주 기도모임에는 12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여전도회는 딸기축제, 도시락 모임, 편지돌리기 등으로 오르간 구입 자금을 마련했고, 15 세 데이지 풀은 말을 몰고 조지타운까지 가서 \$50 짜리 오르간을 사왔습니다. 이후 5 년간 오르간 반주자로 섬겼습니다.



1908 년, 스미스채플은 허든, 브라운채플, 위일리와 함께 하나의 순회 circuit 에 속했고, 교회의 여성들은 교회 건물 관리, 목회자 지원, 닭이 주일에 낳은 달걀 수익이나 비 오는 날마다 저축한 동전으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1945 년에는 나무 난로를 \$68 짜리 석유난로로 교체했지만, **1952** 년 교인은 급격히 줄어 예배가 중단되었고, 1 년 안에 교회를 매각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은 해, 신학생 **로널드 클라크**가 이 지역을 방문하다 비어 있는 예배당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들어가 설교를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알렉산드리아 지구에서는 교회 재개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과 어린이들은 돌아오고 싶어 했지만, 남성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다시 문을 연다면, 복음은 남성들에게도 들려져야 한다.”



그 위원 중 한 명이었던 **테레사 G. 패리시** (1889-1974, 왼쪽 사진)는 원래 스미스채플 교인이 아니었고 단지 음식만 제공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핵심 인물이 되었고, 마지못해 드린 기도가 헌신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스미스채플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주의 뜻에 굴복하게 하소서... 이 육신은 약하지만, 주님을 향해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953 년, 교회는 시험적으로 다시 열렸고, **1954** 년 **6** 월, 공식적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959 년, 교회는 부흥회를 열고

불가능해 보였던 \$1,000 을 모아 **Lambert Hall** (현재의 교육관 겸 친교실, 오른쪽 사진: 내부 모습)을 세웠습니다. **1959** 년 4 월 12 일에 착공하여 **1960** 년 부활주일에 봉헌되었습니다.



새로운 장: 글로벌감리교회로의 여정

1982 년, 스미스채플은 순회 교회에서 독립된 지역교회(station church)가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해에 걸쳐 헌신적인 목회가 이어졌고, **2018** 년에는 23 년간 스미스채플을 섬겼던 **데이브 주첼리** 목사가 은퇴하셨습니다. 이후 현재 담임목사 **강호** 목사 (왼쪽 사진)와 김연미 사모, 두 딸 강주은, 강주혜와 함께 교회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2023 년, 성경적 권위와 성윤리에 관한 교단의 갈등 속에서, 스미스채플은 기도로 미래를 분별했습니다. 많은 기도와 토론 끝에 교단 탈퇴를 결의했고, 그 결정은 **2023** 년 **10** 월 **7** 일 버지니아 연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 해 **12** 월 **31** 일, 스미스채플은 공식적으로 글로벌감리교회(GMC)에 가입했습니다.



SMITH CHAPEL
GLOBAL METHODIST CHURCH

한국어 예배의 시작

2024 년 12 월 초, 강호 목사 가정은 스미스채플의 기도와 후원 속에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직후, 조영진 목사(글로벌감리교회 명예감독)와 유성일 감리사(북버지니아 지역)로부터 만남 요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스미스채플 이름으로 한국어 예배를 시작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스미스채플은 긴급 총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한국어 예배



시작을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 년 1 월 첫 주, 스미스채플에서 스미스채플 이름으로 처음 한국어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같은 해 3 월에는 챌틸리 캠퍼스로 예배 장소를 옮겨 Impact Church 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습니다. 6 월 첫 주부터는 다시 스미스채플 본당에서 새로운 한국어 예배가 시작되어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스미스채플 135 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시작된 한국어 예배가 두 곳에서 매주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현재 사명과 비전

스미스채플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있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성경적 거룩함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자! 입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늘어나며, 평신도가 능력 있게 사역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치유와 회복,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이와 같은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교회가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도 함께 응답하시길 초청합니다. 샬롬 샬롬!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